

# 12~13세기 고려청자와 중국청자의 장식디자인 비교 연구

약쿤<sup>1</sup>, 임천<sup>1</sup>, 김혜진<sup>2\*</sup>

<sup>1</sup>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박사과정, <sup>2</sup>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교수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coration of Korean Celadon and Chinese Celadon i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Yue kun<sup>1</sup>, Ren chuan<sup>1</sup>, Hea-jin Kim<sup>2\*</sup>

<sup>1</sup>Doctoral Student, 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요 약 12~13세기는 청자의 전성기였다. 고려청자는 중국청자에 영향을 받아 제작 및 소성기술을 습득한 이후 독자적인 청자 발전의 절정기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상감기법이라는 독자적인 장식기법을 발전시켰고 문양의 종류나 배치도 추상적인 문양으로 나아간 중국과 달리 자연물의 모습 그대로를 청자에 담아 그 아름다움을 널리 떨치게 되었다. 비록 고려청자와 중국청자가 같은 발원지에서 나타났지만, 각자의 지리적 특성과 민족적 미감에 따라 다르게 변화 발전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2~13세기 중·한 양국의 청자 나타나는 유약의 사용을 비롯한 소성기법 및 장식에 사용되는 문양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고려청자, 중국청자, 상감기법, 문양비교, 유약비교

**Abstract** In the 12th century to the 13th century, was the heyday of celadon, Koryo celadon after experienced celadon firing technology of imitation to the peak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Chinese celadon, especially on decoration technology pioneered the self unique style, the way of engraving, xiàngqiàn. During this period, the southern Song dynasty celadon in China also innovated in the mature celadon firing technology and became more distinctive. The decorative style also promoted the aesthetic interest of the Song dynasty. Celadon decoration is not only a decorative art of ceramic art, but also a representation of national cultural phenomenon with the traditional culture i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 play a more important role and value.

**Key Words** : Koryo celadon, Chinese celadon, Xiàngqiàn, Decoration comparison, Glaze comparison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미

본 연구는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한국과 중국 청자의 '장식기법'과 문양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도자기 기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교류는 양국 도자기의 심미적인

발전과 예술적인 도약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청자는 여전히 뛰어난 예술품이자 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중·한 양국의 청자를 비교해 봄으로써 각각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교류를 통해 기법과 미감이 어떻게 공통점과 독창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배경

\*Corresponding Author : Hea-jin Kim(artceramic@kongju.ac.kr)

Received December 31, 2018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February 12,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도자기는 중·한 양국 모두 자신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불릴만하다. 도자기류는 예술작품으로서 물론 생활용품으로 실제 사용되었기 때문에 두 민족의 미의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청자는 이러한 점에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데 발원지를 같이 하면서도 각기 독자적인 미감으로 전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선 간략히 양국의 청자에 대해 살펴보면, 남송(A.D.1127~1276)의 청자는 말할 것도 없이 북송(A.D.960~1127) 초기의 웨저우요(越窯)를 계승하며 알려진 바와 같이 용천요(龍泉窯)와 관요(官窯)로 구분할 수 있다[1].

고려청자는 9세기 말 10세기 초에 제작되기 시작하여 12세기부터 13세기 전기에 전성기를 이룬다. 처음에는 회유청자(灰釉靑瓷)였다가 이후 웨이저우요(越州窯)의 제작 및 소성기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마침내 고려만의 도예로서 독자적인 청자의 색깔 및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2]. 12~13세기의 고려청자는 문양이 없는 비색청자와 상감청자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 또한, 비색의 청자와 달리 회색을 띠는 철화청자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면서 다른 미감을 보여주었으나 12세기 중엽 이후로는 상감기법이 성행하면서 수량이 감소한다[3].

정리하면, 중·한 양국의 청자는 모두 절강성(浙江省)의 월요(越窯)에 뿌리를 두고 있다[4]. 그 기원을 같이하면서도 중국과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양국의 청자는 기원이 같으면서도 각자의 독자성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기술과 예술적 발전상을 비교하기 좋은 대상이다.

## 2. 중국청자의 장식기법 및 문양

용천요(龍泉窯)와 수내사요(修內司窯)로 대표로 하는 중국청자는 고려청자와 비교하였을 때 공통으로 두꺼운 유약층과 옥(玉)을 모방하는 색깔을 보이며, 사용되는 문양이 비슷하나 용천요가 도자기의 형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먼저 용천요는 분청유(粉靑釉)와 ‘매자청유(梅子靑釉)’로 구분하는데 분청유는 유약을 바른 표면이 투명하

지 않고 상태로 약간 혼탁하며, 유약색상은 짙은 풀빛을 띠며 측면에 분홍색의 윤이 난다. 그리고, 기물 표면은 은은한 광택이 풍부하게 느껴지면서 전반적인 유약의 색깔은 부드럽고 청옥과 비슷한 질감을 보인다. 반면, 매자청유는 산뜻한 청록색의 윤택이 넘치고 투명한 느낌의 유약층이 돋보인다[5]. 용천청자 유약의 이러한 색깔은 중국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옥의 질감을 원한 것이며, 동시에 남송 도자기의 단아함과 평온함을 나타낼 수 있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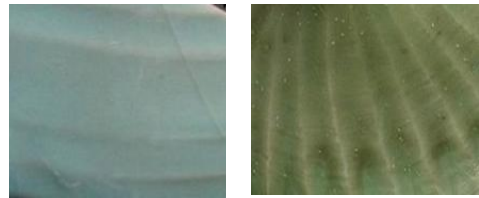


Fig. 1. Fenqing glaze fragments (L), Mei Ziqing's glaze fragments(R)

표면의 문양은 그림을 새겨 넣는 각화기법(劃刻技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각화도구의 활용에 따라 넓이와 깊이가 다른 장식 효과를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문양으로 전지(纏枝), 모란(牡丹), 화문(花紋), 권초문(卷草紋)이 있었으며, 후기로 들어서면서 화훼(花卉), 구름문(雲紋), 비연(飛雁), 영희(嬰戲) 등이다[7]. 그러나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용천청자는 두툽한 유약에 반해 기물은 상대적으로 얇아져서 양각 기법을 활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8].

궁중에서 필요한 기물을 제작하는 관요는 어느 시기에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였다. 송대의 관요는 정강의 난 이후로 크게 파손되었다가 남송으로 옮겨 재건되는 양상이다. 북송의 여요(汝窯)와 달리 남송의 수내사관요는 흙에 포함된 철분으로 인한 어두운 빛을 감추기 위해 마찬가지로 두껍게 유약을 바르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남송초기에는 한 번만 시유하였으나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기물은 얇고 유약은 두껍게 여러 번 시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흔히 볼 수 있는 장식기법으로는 각화(刻劃花), 날엽(印花), 접화(貼花), 퇴소(堆塑), 투각(鏤空), 양각(陽刻) 등이 있으며, 문양으로는 화초(花草), 어충(魚蟲), 구름(雲紋)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용천요와 수내사에서 제작된 관요청자는 장식기법과 문양은 비슷하나, 유약의 색깔에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관요청자는 세부적인 장식과 문양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용천청자는 도자기의 외형에 심미의 중점을 두었다.

기물(器物)에 두껍게 유약을 바르면서 중국인이 귀하게 여기는 옥의 질감을 추구하는 것은 이어지는 고려와 대비되는 중국청자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 3. 12~13세기 고려청자의 장식기법 및 문양

이 시기 고려청자의 색감은 낭랑하고 맑은 색상으로 중국청자와 비교해서 유약의 투명도가 더 높으며, 청녹색이라 하여도 청색이 더 나타난다. 장식으로는 수문(素紋), 각화(刻花), 화화(劃花), 인화(印花), 조각, 상감(鑲嵌)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각화의 특징은 음각의 깊이 감에 따라 무늬의 입체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화화는 선이 유창하며, 조각 장식은 사실적이고 정교하고, 상감은 섬세하면서 우아하다. 무늬 도안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운룡(雲龍), 여의(如意), 봉황(鳳凰), 모란(牡丹), 연판(蓮瓣), 연꽃(荷花), 죽엽(竹葉), 국화(菊花), 선학(仙鶴), 포류수금(蒲柳水禽) 등 대부분이 기원과 건강, 안녕 그리고 장수의 의미를 지닌다[9].

장식기법의 측면에서 고려도공의 독창적인 기술로 인정되는 상감법의 기원은 차스동기(掐絲銅器) 혹은 ‘은스칠기(銀絲漆器)’일 것으로 추측하는데 본래 금속기에 사용되던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한 것이다[10].



Fig. 2. Pine crane Mosaic mei bottle(L), Koryo celadon Tang grass(R)

12세기 후반의 고려청자는 음각이나 양각의 기법이 점차 사라지고 상감기법이 주를 이루며 화훼(花卉), 용봉(龍鳳), 선학(仙鶴), 원숭이, 인물(人物), 시문(詩文), 연화문양(蓮花紋), 권운문양(卷雲紋), 전지문양(纏枝紋) 등 다양한 소재가 표현된다. 장식의 구성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주문양(主紋)과 종속문양(從屬紋)이 서로 조화롭게 배합되어 있다.

중국청자가 각화를 시작으로 해서 유약의 변화에 따

라 양각기법으로 변화한 것이라면 고려청자는 맑고 투명한 유약층에 어울리는 선이 드러나는 무늬와 상감기법으로 그 독창성을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 4. 고려청자와 중국청자의 장식비교

#### 4.1 도안의 소재 및 장식비교

장식 소재 및 문양을 보면 양국 청자의 장식에 구름, 화초, 서수(瑞獸), 수금(水禽), 인물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0세기부터 고려청자에도 추상 문양이 나타나지만, 고려청자는 자연과 현지에 취재한다[11]. 이 가운데는 운학(雲鶴) 과 국화가 제일 많다. 무늬의 기원은 중국의 영향이지만 소재, 표현기법, 등은 고유한 고려적인 것이다. 특히 현실주의의 표현 방법을 통하여 자연물 및 그림 예술이 도자기와 결합하여, 무늬의 생동감(生動感)이 넘친다. 중국 청자는 동일 시기에 전지모란화(纏枝牡丹花), 쌍물고기, 원앙새, 영희(嬰戲), 용봉(龍鳳) 등의 문양을 많이 사용하였다.

Table 1. Koryo Celadon and Chinese Celadon Decoration Patterns in the 12th to 13th Centuries

	Koryo Celadon	Chinese Celadon
flower		
figure		
animal		

#### 4.2 장식기법 비교

양국 청자의 장식기법에는 각화(刻花), 인화(印花), 퇴소(堆塑) 기법이 모두 나타났다. 고려청자는 10세기부터 음각문(陰刻紋) 이 나타난다. 이어서 철화문(鐵花紋),

상감문(鑲嵌紋), 양각문(陽刻文), 반양문(半陽紋), 인화문(印花紋)이 나타난다. 12세기 상감문(鑲嵌紋)의 출현이 청자무늬의 혁신이 되고 고려청자 장식기법을 대표하게 된다. 상감청자 중에 백상감(白鑲嵌) 기법이 주류기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고려청자를 대표로 하는 상감청자는 장식으로 흑·백선을 사용하는 특색 있는 기술을 선보인다. 이에 고려 상감청자의 장식 도안은 중국청자와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고려민족의 특징이 담긴 '조선회'(朝鮮繪)에서 기인한 것이다[12]. 남송청자는 국가의 전반적인 통제하에 제작되는데, 남송시대의 단아함과 함축의 미학 사상을 주로 반영한다. 그리고 중국청자는 옥의 질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약의 층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양식을 축약해서 '박태후유(薄胎厚釉: 얇은 기형에 두꺼운 유약)'라고 한다. 중국청자의 두툼한 유약 층으로 인한 표면 장식의 불필요를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전의 다양한 장식기법의 종류가 현저히 축소되었다. 장식기법은 인화(印花), 접화(貼花), 퇴소(堆塑), 투각(鏤空)기법을 많이 이용한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남송청자 대부분은 무늬 없는 단색원단의 유약색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다.

#### 4.3 유약 및 색깔의 비교

색채는 빛의 산물이며 빛은 각기 다른 색채를 만들어 낸다[13]. 유약층의 두께나 유약의 성분은 이러한 색채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려청자는 '후태박유'(厚胎薄釉)의 양식을 가지며, 중국청자는 '박태후유'(薄胎厚釉)라는 양식을 가진다. 이는 기물과 유약 층의 두께에 따른 장식기법의 차이 말한다[14]. 고려청자는 유약 및 태토가 우수한 재질로 색깔이 화려하고 선연하다. 9세기 전에 고려청자에 사용된 유약은 중국청자 같은 재질이고 그중에 풍부한 이산화망간이 함유되어있어 가마에 넣어 구우면 청자의 표면 투명도가 낮아진다. 10세기 이후에 고려청자에 사용된 유약은 산화망간 및 산화철의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청자의 표면이 더 투명하고 맑다[15]. 고려청자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에도 유약층에 발생하는 작은 기포를 전부 밀봉해야 한다. 청자표면에 두꺼운 유약은 불완전 연소를 통해 기포를 밀봉하면 비취와 같은 청색이 된다. 남송은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옥의 질감을 더 집요하게 추구하게 된다. 옥처럼 투명하지 않고 유약의 흐릿한 아름다움이 극도에 달성하기 위해 남송청자 유약 층이 점점 더 두꺼워진 것

이다. 그리고 용천요(龍泉窯) 및 관요(官窯)에 나온 반제품에 철 함유량이 많아 황갈색, 회색이나 보라색이 있다. 철 자체의 색을 가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유약을 바름으로써 표면이 불투명 또는 투명도가 낮은 상태가 되며 색깔도 고려청자와 차이가 있다. 용천청자에 분청유약 색깔은 청색에 핑크가 있고, 매자청자의 유약은 미세한 투명성이 있으며 청에 황녹색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관요의 청자는 청색에 회색 있다.

Table 2. Glaze and Color of Koryo Celadon and Southern Song Celadon from 12th to 13th Century

jade celadon		thin glaze layer and transparent, blue green
xiàngqiàn celadon		
long quan celadon		thick glaze layer and opaque, light ash color
guanyo celadon		

## 5. 결론

고려청자와 중국청자는 장식기법뿐만 아니라 제작기법 전반에서 월요청자(越窯靑瓷)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도예 발전이 정점에 이르는 12~13세기에는 서로 다른 심미의 발현으로 서로 다른 예술성을 가진 청자가 된다. 중국청자는 이전의 웨이요(越窯)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곡선의 장식미는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다. 따라서 표현된 장식은 지극히 간단하고 추상적이다. 또한, 옥의 질감과 단아한 분위기를 추구한 남송의 미의식은 박태후유의 기법을 통해 단색의 미를 추구했다.

고려의 청자는 상감이라는 고유의 기법을 완성하면서 자연물을 도자기에 표현하면서 자연스러운 선을 살리는

문양으로 발전하였다. 유약의 사용에서는 후대박유의 양상을 띠면서 특유의 맑고 청아한 비색청자를 완성하는데 선의 아름다움과 맑고 투명한 유약층이 잘 어울린다.

도자의 표면에 그려지는 문양은 단순히 형태를 옮기는 것을 넘어 감상을 위한 회화의 역할은 물론 그 민족은 고유한 미감과 스토리를 담고 있다[16]. 부드럽지만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약층에 어울리는 문양은 평면적이고 추상적인 도형으로 나타났고 부드러운 선을 살려주는 얇은 유약층 위에서는 꽃과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듯 표현되었다.

양국 청자가 보여주는 유약의 색감과 문양의 차별점은 각각의 청자가 가지는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창성은 생활용품으로서 청자에 반영된 민족문화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두 나라의 청자는 여전히 사랑받는 예술품이자 생활용품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Wang Fang. (2012). *Comparative Study of Longquan Ceramic Kiln and Guanware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Beijing : Minzu University of China.
- [2] Chen Jinhai. (2006). *World Ceramics, Volume II*. Shenyang : Wanjuan Publishing Company.
- [3] B. S. Bang. (2013). The Origin of the Korea Underglaze Iron Painted Celadon : Comparative Study on the Chinese Underglaze Iron Painted Celadon of the Changsha kiln and the Yue kil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5, 5-40.
- [4] K. S. Kang. (2012). *A History of Korean Ceramic Art*. Seoul: Yekyung..
- [4] Zhu Boqian. (1998). *Longquan Celadon, Zhejiang Hangzhou*.: Photography Publishing Company.
- [5] Chinese Society of Citrate Ceramics. (1982). *History of Chinese Ceramics*. Beijing : Cultural Relics Publishing Company.
- [6] Guo Shouling. (2004).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Celadon and Korean Goryeo celadon* Beijing : Tsinghua University.
- [7] Lili Fang. (2011). *Chinese Ceramics: Introductions to Chinese Cultur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8] S. H. Rha. (2006). *Pottery: Korean Traditional Handicrafts*. Seoul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9] Y. H. Kim. (2015). *Plasticity of Ceramic Art*. Seoul: JiguGwaHaksa.
- [10] Wang Fen & Robert Anderson. (2007). *Goryeo celadon and Chinese Celadon, Chinese Ceramics*. Beijing : Jingdezhen.
- [11] Y. O. Shin. (2003). *A Study of Cheong-ja, Korean Kōryo Dynasty Celadon Ware and Their Chinese Models: Stylistic Influence and Transformation of Celadons from China to Korea*.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Seoul: Program in Museum Studies.
- [12] Xie Jie. (2016). *Comparative Study of decoration techniques between Goryeo and Contemporaneous Chinese celadon jingdezhen* : , university of jingdezhen ceramic.
- [13] Chen Juan, Boa-Liang Xu & W. S. Kim. (2018). A Study on Convergence of Color Characteristi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0), 421-426.
- [14] Li Qi. (2014). *Comparative Study of 9-13 Century China Yaozhou and Korea celadon*. Jingdezhen : Jingdezhen Ceramic University.
- [15] Y. Pak & R. Whitfield. (2003). *Earthenware and Celadon*. London : Laurence King Publishing.
- [16] W. S. Kim, H. S. Ro & J. H. Choi. (2017). A Study on Ceramic Expression using Silhouette Technique and Decal Techniqu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95-502.

약 쿤(Yue Kun)

[정회원]



- 2013년 6월 : 중국 호남공정대학교 디자인예술학원 공업제품디자인 전공(학사)
- 2016년 6월 : 중국 징더전도자기대학교 디자인예술학원 도자기디자인과 이론연구전공(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과 세라믹 디자인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도자공예, 디자인
- E-Mail : 329103784@qq.com

임 천(Ren Chuan)

[정회원]



- 2011년 6월 : 중국 옥림사범대학교 예술대학 중국회화전공(학사)
- 2014년 6월 : 중국 장시 성 사범대학교 미술대학 중국회화전공(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과 세라믹디자인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도자공예, 역사
- E-Mail : monkeyvicky@sina.com

김 혜 진(Kim, Hae Jin)

[정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졸업(학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자예술졸업(석사)
- 2017년 8월 :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전공) (박사)

- 2009년 10월 : SOTHEBY'S INSTITUTE OF ART (Singapore) 'Connecting Art & Business Course'
- 2011년 3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도자공예, 문화예술교육, 예술콘텐츠
- E-Mail : artceramic@kongju.ac.kr